

# 어머니의 가치관 및 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value and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s behavioral inhibition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 수 박 성 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발달 전공  
박사과정 이 사 라  
안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 교 수 박 응 임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 : Park, Seong-Yeon*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Lee, Sa-Rah*

Dept. of Home Management, Ando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 Park, Ung-Im*

## 〈목 차〉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behavioral inhibition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value and attitudes toward children's inhibited behavior as a function of child sex.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from a sample of 483 7-to 8 year-olds and their mothers.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her's value, mother's attitudes toward child behavior and child's behavioral inhibition according to child sex. However, it was found that mother's value wa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 child inhibition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7-to 8 year-old girls. More specifically, mothers who hold high traditional values were not concerned about girls' inhibited behavior and thus, in turn, had more inhibited girls. But the associations were not

found for boys. The results indicated cultural effects on parenting attitudes as well as child inhibition.

## I. 서론

최근에 이르러 발달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이나 발달에서 나타나는 범 문화적인 보편성과 문화에 따른 특수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국가간 비교에서 나타나는 연구결과의 차이를 통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즉, 비교 문화적인 연구 결과들은 개인의 발달양상은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발달 원리를 따르기도 하지만, 그 개인이 속한 문화에 따라 특수한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동시에 발달의 고유성 또는 특수성 관점에서, 인간 행동 양상이나 그에 대한 심리학적 의미의 해석은 문화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아동의 행동 발달은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예컨대, 부모의 사회화 목표나 양육행동은 각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문화적, 시대적 가치체계에 따른 부모의 양육 목표, 신념, 기대, 또는 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Harris, 1998; Hoffman, 1988; Whiting & Edward, 1988).

이러한 사실은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억제(inhibition) 정도가 동서양 문화에 따라 다를 뿐더러 그에 대한 반응과 해석이 각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Chao, 1994; Chen, Rubin, & Li, 1995; Chen, Hatings, Rubin, Chen, Cen, & Stewart, 1998; Lin & Fu, 1990)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을 비롯한 동양권 아동들은 서양권 아동들 보다 행동억제성향을 더 많이 나타낸다(Chen et al., 1998; Farver & Howes, 1988; Farver, Kim, & Lee, 1995; Kagan, Kearsley, & Zelazo, 1978). 또한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동양에서보다 아동이 수줍음이나 행동억제를 보이는 것에 대해 훨씬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즉, 행동억제를 보이는 아동은 사회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래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없으며, 학교 생활에서 부적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Rubin &

Asendorpf, 1993; Chen, Rubin, & Sun, 1992; Chen et al., 1995; 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 따라서 서구문화권의 부모들은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억제를 못 마땅해 하는 한편, 도전적이거나 주장적인 행동을 격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전적, 생리적으로 행동억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라도 점차 자기 주장적 행동을 보이고, 새로운 것의 탐색이나 낯선 사람들과도 상호작용에서 비교적 자연스러운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행동억제에 대한 이와 같은 서구적 가치기준이 현대의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일 수 없다는 것이 중국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시사되고 있다. Chen과 그의 동료들(1992, 1995)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중기에는 행동억제를 나타내는 아동이 또래간에 인기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김근영(1994)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수줍음과 또래간 인기도간의 관계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낸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나 중국의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적어도 중국 문화에서는 새로운 상황에 처해 수줍어하거나, 다소 물러나는 행동억제 성향이 오히려 전통적 유교사상과 더 잘 부합되기 때문에 서구에서처럼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부적용적인 행동으로 보는 대신, 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캐나다와 중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방식과 수줍음 행동간의 관계를 비교한 Chen과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에 의하면, 캐나다의 경우 행동억제를 보이는 걸음마기 유아의 어머니는 처벌적, 거부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는 반면, 중국에서는 캐나다의 경우와는 정 반대로, 수줍은 아동의 어머니가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행동억제에 대한 가치판단이 문화적으로 보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의 신념과 행동이 그들이 속한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체계에 의

해 좌우되며, 부모는 문화적인 기대에 적절한 행동을 자녀에게 격려한다는 주장(Hoffman, 1988)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유교철학의 영향을 받은 문화에서는 선부른 행동을 삼가는 인성특성에 가치를 둔다는 관점(Tseng, 1973)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동양의 어머니들은 행동억제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서구적인 가치의 영향을 쉽게 받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어머니의 가치관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전통적 또는 서구적인 가치관을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 아동의 수줍음이나 행동억제에 대한 양육태도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성이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남녀 차별의식이 강했고 지금도 사회 전반에 걸쳐 남자와 여자에게 기대하는 성 역할 행동이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아동의 행동억제 성향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5세 전후의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줍음을 연구한 도현심과 박성연(1992)은 거의 절반 가량의 어머니들이 아동의 수줍음에 대해 걱정스러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그러한 염려 정도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한편,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들(도현심, 박성연, 1992; 박성연, 1998; Broberg, Lamb, & Hwang, 1990; Chen, et al., 1998; Kochanska, 1991)에서는 남·여아간 행동억제에서 성 차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아동중기와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Chen과 그의 동료들(1995)의 연구에서는 캐나다와 중국표본 모두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행동억제를 더 많이 나타내, 행동억제에 대한 평가나 사회적 지각 또는 부모의 관심이나 사회화 요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가정된다. 더욱이 5세 미만의 유아의 행동억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서는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Park & Belsky, 1998) 한편,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중학생을 연구한 경우에는 수줍음과 인기도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김

근영, 1994), 부모는 수줍음 또는 행동억제에 대해 아동의 연령 및 성에 따라 다르게 사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요약하면,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사회화 목표는 어머니의 가치관이나, 아동의 연령 및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Okagaki & Divecha, 1993)에도 불구하고 성에 따른 행동억제의 차이를 보고한 소수의 선행연구들(Chen et al, 1992; 1995)에서 어머니의 태도를 아동의 성과 관련지어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남·여아의 행동억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한국 사회는 아시아권 문화에 속한 다른 나라들(예: 중국, 일본 등)과 유사하게, 한 개인의 개별화나 독립성보다는 개인간의 상호적 조화와 사회 전체의 질서와 가치에 더 비중을 두는 집단주의적, 가족주의적 문화에 속해 있다(한규석, 1991). 따라서,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욕구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도 수용되는 사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서구사회에서 부정적이고 무능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행동억제가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에서는, 특히, 여성 집단에서는 매우 순응적, 적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양식이나 행동은 문화적으로 기대되고 사회화의 목표에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 사회에서는 서구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독립적, 자기 주장적인 개인주의적 사고나 행동은 격려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부적응과 관련된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는 산업화에 따른 서구의 물질문명의 확산으로 한국의 전통적, 보수적 가치관은 급속히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서구 문화권의 가치 및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나 태도도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다른 문명화된 서구 사회에서 1세기 이상의 시간을 거쳐 이른 변화를 불과 40~50년 기간동안 경험하게 된 사회이기에, 과거 오랜 시간동안 유지되고 맥락을 이어온 전통적 보수적 가치관과,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서구적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

다(이원복, 1997).

이러한 현실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한국의 어머니들은 서구의 문화적 영향을 수용하거나 서구적인 가치성향을 지니는 정도가 다를 것이며, 이에 따라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도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같은 유교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동양권이라 해도 행동억제에 대한 태도나 아동의 행동에 있어, 최근에 개방화를 경험하여 이제 막 서구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와 다를 것이며, 개인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인 미국 또는 캐나다의 경우와도 다른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행동억제가 문화적인 가치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므로 한 문화의 가치관에 따라 부모는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억제를 저지하기도 하고 조장하기도 한다(Rubin, Stewart, & Chen, 1995)는 이론적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들의 전통적 또는 서구적인 가치 성향이나 행동억제에 대한 태도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보고, 전통적 또는 서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도에 따라 자녀의 행동억제성향에 대한 양육태도가 다를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태도에 따라 아동의 행동억제는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가치관이나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태도 및 아동의 행동억제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를 것인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가치관,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태도,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행동억제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를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보다 전통적인 가치를 지향할 경우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해 수용적인 반면, 보다 서구적인 가치를 지향할 경우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적극적인 행동을 격려하려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두 변인간의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를 것이며, 가치관과 태도와의 관계는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행동억제 정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 332명(강남:228, 강북:104)과 안동지역에 살고있는 151명의 중류층 가정의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 총 483명(남아:249명, 여아:234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평균연령은 7년 4개월(SD:8개월)이고, 그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5년 8개월(SD:3년)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교육수준은 약 15년으로 주로 전문대졸에서 대졸의 학력을 나타냈고, 모든 어머니들은 배우자가 있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1.41명(SD;.69)이었다. 어머니들의 약 68%가 전업주부이고 32%가 취업한 상태였다. 또한 아동의 행동억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13명의 담임교사가 참여하였다.

### 2. 측정도구

측정도구로는 세 종류의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이중 어머니의 가치관을 측정하는 질문지 및 아동의 행동억제를 측정하기 위한 교사용 질문지는 선행 연구(Park & Belsky, 1998)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들을 일부 발췌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묻는 질문지는 본 연구를 위해 새로 개발되었다.

1) 가치관 척도 :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어느 정도 전통적 또는 서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서구화 척도(Park & Belsky, 1998)중 하위 척도인 전통적 가치관척도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통적 가치관 척도는 개인주의나 평등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전통적 가족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성 역할 가치와 효 및 집단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다. 전통적 가치관 척도문항은 “여자는 남자보다 자기 주장이 약해야 한다”, “결혼생활이 불행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내자신의 일로 바빠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하면 몹시 마음이 괴롭다”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에 어머니가 어느 정

도 동의하는지를 응답하게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의 범위는 1점(전혀 찬성하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찬성한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서구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75$ 이다.

2)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어머니 태도 : 행동억제는 아동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나타내는 위축된 행동(withdrawal)이나 경계심(wariness) 또는 과묵한(reticent)행동으로 정의(Rubin & Asendorpf, 1993)되며, 주로 사회적인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수줍음보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의 행동억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장소나 상황, 또는 새로운 사람에 대해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상황을 제시하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취하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된 15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개발은 이미정(1998), Park & Belsky(1998)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참고로 하였다. 한편, 척도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해 먼저 각 문항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문항간 상관이 높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요인간 상관이 "0"을 가정하고 있는 Varimax 방식보다는 사각회전인 Direct Oblimin 방식을 선택하였다(이순목, 1994).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이 두 개로 밝혀졌으며, 이 두요인에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인 문항 10문항이 포함되었다. 요인 1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수줍어하는 행동"(4문항)으로, 요인 2는 "새로운 상황에서 나대는 행동"(6문항)으로 명명되었다. '상호작용 행동'의 문항내용은, "아이가 아는 어른이 묻는 말에 수줍어서 말을 잘 못하면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길에서 아이의 친구가 웃으며 말을 건넸으나 아이가 수줍어서 그냥 지나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무라거나 지도한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나대는 행동'에 관한 문항 예로는, '아이의 친구가 우리 집에 처음 와서 스스럼없이 행동하면 좀 나대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아이가 처음 가는 곳에서 활

동적으로 행동하면 조용하게 있도록 지도한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뜻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아동의 행동억제를 수용 또는 조장하는 태도를 의미하도록 '나대는 행동'의 문항은 역부호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 행동' 요인의 문항 신뢰도는  $\alpha = .74$ , '나대는 행동' 요인의 문항 신뢰도는  $\alpha = .65$ 로 나타났다(문항내용 및 요인부하량은 부록 참고).

3) 교사용 질문지 : 아동이 실제 어느 정도의 행동억제를 보이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Park과 Belsky(1998)의 교사용 평가 척도 28개 문항 중 14개 문항을 발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용으로는, '친구를 쉽게 사귀다', '다른 아이들이 노는데 같이 참여하지 않고 아이들이 노는 것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쳐다보거나 듣는다', '선생님께 말을 거는 것을 주저한다' 등 사회적, 비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내는 망서림 행동이나 접근 또는 위축행동에 관한 내용들이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되며, 문항에 따라 역산되기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억제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77$ 이다.

### 3. 자료수집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각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담임 교사가 연구에 참여하기로 허락한 학급의 아동들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자료 수집절차는 우선 13명의 교사가 반 아동들의 행동억제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교사가 평가한 아동들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보낸 다음 2~3일 후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교사에 따라 평가기준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같은 기준에서 아동의 행동억제 성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원 점수를 z-score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아동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가치관 및 행동억제에 대한 태도와 아동의 행동억제

남아와 여아의 어머니의 가치관 양육태도 및 행동억제 점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t 값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가치관 평균은 1~5점(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임)의 점수범위에서 남아의 경우 M=3.13, 여아의 경우 M=3.14로 나타나, 남아와 여아의 어머니 모두 다소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이고 있으며, t 검증결과 아동의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행동억제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평균은 1~4점(점수가 낮을수록 행동억제를 조장하는 태도임)의 점수범위에서 '상호작용 행동'요인에서는 남아의 경우 M=3.05, 여아의 경우는 M=3.04로 나타나, 수줍은 행동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대는 행동'요인에서는 남아의 경우 M=2.38, 여아의 경우 M=2.40으로 나타나, '나대는 행동'을 조장하기보다는 상관하지 않거나 비교적 조신한 행동을 격려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 역시, 남·여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교사가 평가한 아

동의 행동억제 성향에서도 여아의 행동억제 성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2. 어머니의 가치관 및 행동억제에 대한 태도와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서는 남아, 여아 각각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아들에게서는 세 변인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아들에게서만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태도 중에서도 '상호작용 행동'요인에서만 이러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여아들의 경우, <표 2>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가치관과 행동억제에 대한 태도, 그리고 행동억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행동억제간에 부적인 상관관계(각각  $r=-.21$   $p<.01$ ;  $r=-.17$ ,  $p<.01$ )를 나타내었다. 결국, 어머니가 전통적인 가치성향을 띠수록 아동이 나타내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내는 행동억제를 비교적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러한 태도는 높은 행동억제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어머니가 서구적인 가치관을 가질 경우는 아동이 행동억제를 덜하도록 격려하고, 아동은 낮은 행동억제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표 1 > 성, 지역에 따른 가치관, 태도, 행동억제의 t 검증

(N= 483)

종속변인 \ 독립변인		남아(N=249)		여아(N=234)		t 값
		M	SD	M	SD	
가치관		3.13	.52	3.14	.51	- 2.84
행동 억제에 대한 태도	상호작용 행동	3.05	.51	3.04	.45	2.13
	나대는 행동	2.38	.41	2.40	.42	-.29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행동억제		-.10	4.1	.05	4.3	-1.05

주: · 가치관 (1~5점):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임

· 행동억제에 대한 태도(1~4점):

점수가 높을수록 적극적인(uninhibited) 행동을 조장함.

점수가 낮을수록 행동억제(inhibited)를 조장함.

· 아동의 행동억제: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억제가 높음

〈표 2〉 어머니의 가치, 행동억제에 대한 태도 및 아동의 행동억제 간의 관계

	여아(N=234)				남아(N=249)			
	가치관	요인1	요인2	행동억제	가치관	요인1	요인2	행동억제
가치관	-				-			
요인1	-.21**	-			-.12	-		
요인2	-.03	.22**	-		-.06	.15*	-	
행동억제	.04	-.17**	-.03	-	.03	-.06	-.08	-

\* p < .05

\*\* p < .01

주: 요인1과 요인2는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요인들로 요인1은 '상호작용 행동'이며 요인 2는 '나대는 행동'임.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가치관 및 행동억제에 대한 양육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가치관과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및 아동의 행동억제 정도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문화적 가치는 부모의 신념이나 자녀에 대해 갖는 태도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행동에 반영되기 때문에(Hoffman, 1988), 부모의 양육태도나 아동의 사회적인 행동은 동·서양간에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영향을 크게 받고 보고,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서구 문화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자기 주장적이고 독립적이며 자기 표현을 잘 하는 행동을 격려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되었다. 즉, 어머니가 전통적인 가치를 지향할 경우에는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해 보다 지지적인 반면에, 보다 서구적인 가치를 지향할 경우에는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격려하려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이러한 두 변인간의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를 것이며, 가치관과 태도와의 관계는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행동억제 정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가치관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나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행동억제에 있어서도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남녀 차별의식이 강했고 지금도 사회 전반에 걸쳐 남자와 여자에게 기대하는 성 역할 행동이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아동의 행동억제 성향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어머니의 태도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 즉,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어린 연령의 유아의 경우 행동억제에서 성 차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행동억제에 대한 부모의 성 차별적 태도는 좀 더 구체적이 되고 사회화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아동의 행동억제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아동의 평균 연령이 7세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은 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태도나 행동억제의 성차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가치관과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행동억제 간의 관계는 여아들에게서만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서구적인 가치관을 가질수록 여아의 어머니들은 여아가 행동억제를 나타내지 않도록 격려하는 태도를 나타내며, 또한 이러한 태도는 여아의 낮은 행동억제와 관련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서구적인 가치를 지닌 어머니들의 양육신념이나 태도는 행동억제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을 더 격려할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수줍음이나 행동억제는 부모의 무 반응적이고 민감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 증가되기(Engfer, 1993; Rubin et al., 1997; 박성연, 1998)때문에, 부모가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억제성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격려한다면, 행동억제성향은 낮아질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여아의 경우에만 입증된 것은 흥미로운 결과로서 한국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뿌리 깊은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문화에서는 개인의 욕구보다는 가족 전체의 욕구가 더 우선되었고, 특히 여성의 경우 맹목적인 희생과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것이 훨씬 적응적이라고 인식되어 왔다(장경섭, 1994). 그러나 개인적인 욕구와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두는 서구적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 한국의 젊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딸에게 행동억제를 덜 보이도록 격려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한국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전통적 유교사상으로 인해 그 동안 개인의 자아정체성과 독립성이 표현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지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개방으로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에 영향을 받은 어머니로서는 딸에게 행동억제를 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접근행동(uninhibited behavior)을 격려함으로써 일종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서구적 가치에 영향을 받아 행동억제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같은 성을 가진 자신의 딸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심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편, 딸의 장래를 위해 더 바람직하고 적응적

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편, '나대는 행동' 요인에서 반영된 어머니의 태도가 어머니의 가치관이나 행동억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로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척도의 타당도 문제로서 '나대는 행동'에 관련된 문항들이 행동억제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나대는 행동'에 관련된 문항들을 행동억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 예외범절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들은 실제로 아무리 전통적인 가치를 덜 추구한다해도(즉, 서구적인 가치를 추구한다해도) '나대는 행동'은 격려해주어야 할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버릇없는 행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현대 한국 어머니들의 당면하고 있는 가치관의 혼재를 입증해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행동억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함께,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가치관은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의 행동억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가 아이의 행동억제를 덜 보이도록 격려할수록 아이는 행동억제를 덜 나타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는 종단적인 연구가 아니고 실험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즉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행동을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태도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과연 그러한 행동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 연구는 상관관계 연구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태도와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해석하기 힘든 점도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실험적인 설계를 통해 부모의 가치관 및 신념, 그리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체계적, 종단적으로 연구한다면 부모의 가치나 신념에 따른 양육행동이 행동억제 성향이 강한 아동들에게 어떤 메카니즘을 거쳐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이나 미국의 연구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한 비교문화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같은 문화권내에서도 어머니가 지닌 전통 또는 서구적 가치관의 정도차이에 따라 다른 양육태도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는 이념의 대립, 민족 우월주의, 국가간 경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전환적 시점에 놓여있다(이원복, 1997).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로 인해 각 문화를 구별짓고 있는 고유한 가치나 이념들은 다른 문화권과 불가피하게 영향을 주고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부모의 엄격한 통제와 권위를 유지하면서 자녀에게 순종적이고 억제된 행동을 강요하던 중국의 부모들도 현대 사회의 변화에 적응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녀에게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적인 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Chen et al., 1998)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보다 훨씬 일찍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극적이고 주장적인 서구적인 가치가 중국보다 훨씬 더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국 연구에서 나타난 행동억제와 또래간 인기도의 긍정적인 관계가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앞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행동억제가 사회적인 행동과 어떠한 관련을 갖게 되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근영 (1994). 자기검색과 수줍음이 또래인기에 미치는 영향 - 초기청소년기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박성연(1992). 한국아동의 수줍음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1), 325-338.
- 박성연 (1998). 영아기 정서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3세 아동의 행동억제. *대한가정학회지*, 36(4), 19-33.
- 이순목 (1994). 요인분석의 관행과 문제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7(1).
- 이미정 (1998). 3세 여아의 행동억제(behavior inhibition)와 그 관련변인 - 영아기 정서성, 부모의 내향성,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원복(1997). 만화로 떠나는 21세기 미래여행: 이원복 교수의 21세기 문명체험과 트렌드 진단, 서울: 김영사.
- 장경섭(1994). 한국가족의 이념과 실제. *철학과 현실* 22.
- 한규석(1991).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1.
-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M.(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765-785.
- Broberg, A., Lamb, M.E., & Hwang, P.(1990). Inhibition: Its stability and correlates in 16-to-40-month-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153-1163.
- Chao, R.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s: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Chen, X., Rubin, K.H., & Sun, Y.(1992). Social repu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 A cross-cultural study. *Child Development*, 63, 1336-1343.
- Chen, X., Rubin, K.H., & Li, Z.(1995). Social functioning and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1, 531-539.
- Chen, X., Hasting, P.D., Rubin, K.H., Chen, H., Cen, G., & Stewart, S.L.(1998). Child-rearing attitudes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Chinese and Canadian toddlers: A cross-cultur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77-686.
- Engfer, A.(1993).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hyness in boys and girls: A 6-year longitudinal study.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pp49-80).

- Hillsdale, NJ: Erlbaum.
- Farver, J. A. M., Kim, Y. K. & Lee, Y. (1995). Cultural differences in Korean-and Anglo-American preschooler's social interaction and play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6, 1088-1099.
- Fox, N., & Calkins, S.(1993). Relations between temperament, attachment, and behavioral inhibition: Two possible pathways to extroversion and social withdrawal. In K.H. Rubin &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81-10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rris, J. R.(1998). *The Nurture Assumption*. The Free Press.
- Hoffman, L. W.(1988).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child-rearing goals. In W. Damon, R.A. Levine, P. M. Miller, & M. M. West(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Parental behavior in diverse societies*(Vol, pp.99-122), San Francisco: Jossey-Bass.
- Kagan, J. Kearsley, R. B. & Zelazo, P. R. (1978). *Infancy: Its place in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Kochanska, G.(1991). Patterns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in children of normal and affectively ill mothers. *Child Development*, 62, 250-263.
- Lin, C.C., & Fu, V.R.(1990). A comparison of child-rearing practices among Chinese, immigrant Chinese, and Caucasian-American parents. *Child Development*, 61, 429-433.
- Mills, R.S. L., & Rubin, K. H.(1990). Parental beliefs about problematic social behaviour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25-39.
- Okagaki, L. & Divecha, D. J. (1993). *Development of parental beliefs*. In T.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pp. 35-67), NJ: LEA
- Park, S.Y., Belsky, J., Putnam, S. & Cr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18-227.
- Park, S.Y. & Belsky, J.(1998). South Korean Mothers' Westernization and orientation toward child inhibition.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in Bern, Swiss.
- Reznick, J.S., Kagan, J., Snidman, N., Gersten, M., Baak, K., & Rosenber, A.(1986).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A follow-up study. *Child Development*, 57, 660-680.
- Rubin, K.H., & Asendorf, J.(1993).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NJ: Erlbaum.
- Rubin, K.H., Chen, X., & Hymel. S.(1993). Socio-emotional characteristic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39, 518-534.
- Rubin, K.H., Chen, X., McDougall, P., Bowker, A., & McKinnon.(1995). The Waterloo Longitudinal Project: Predicting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751-764.
- Rubin, K.H., Hastings, P.D., Stewart, S., Henderson, H.A., & Chen, X.(1997). The consistency and concomitants of inhibition: Some of the children, all of the time. *Child Development*, 68, 467-483.
- Tseng, (1973). The concept of personality in Confucian thought. *Psychiatry*, 36, 191-202.
- Whiting, B.B., & Edwards, C.P. (1988). *Children of different worlds*. Cambridge, MA:Harvard University Press.

## 〈부록〉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문항 요인분석 결과

내 용	요인부하량	
	요인 1	요인 2
· 아이가 아는 어른이 묻는 말에 수줍어서 말을 잘못하면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50	.689
· 길에서 아이의 친구가 웃으며 말을 건넸으나 아이가 수줍어서 그냥 지나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무라거나 지도한다.	-.033	.310
· 아이가 친척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가는 것을 수줍어하면, 좀 더 활발하게 행동하도록 격려한다.	-.233	.651
· 아이가 수줍어하는 것에 대해 수줍어하지 않도록 반드시 고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70	.678
· 아이의 친구가 우리집에 처음와서 스스럼없이 행동하면 좀 나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419	-.076
·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수다스러운 것은 좋지 않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367	-.120
· 아이가 엄마의 친구집에 엄마와 함께 방문했을 때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한다.	.537	-.169
· 아이가 어른들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거나 너무 활발하게 행동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591	-.063
· 아이가 처음 가는 곳에서 활동적으로 행동하면 조용하게 있도록 지도한다.	.664	-.087
·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나서서 행동을 하는 것은 나대는 행동(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되어서 조용히 있도록 지도한다.	.374	-.124